

민족하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신 불멸의 영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겨레의 통일속원을 한몸에 안으시고 민족자주위업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시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 강성변영의 새 민족사를 개척하시기 위하여 결심

한, 대변혁을 가져오는 문제 등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당한 지침들을 밝혀주시었다.

특히 조국해방 70돐을 계기로 내외에서 조선반도의 정체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지만 군사분계선일대에서 8월 10일부터 《대북실리전》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하였다.

도발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였다.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하에서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선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전진시상태를 선포하는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었다.

백두령장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가 전해진 후 하루동안에 100여만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 북대를 탄원하였으며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은 최고의 격동상태에서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공화국의 초강경대응앞에서 도발과 북침전쟁연습에 미처달뉘던 호전세력은 공포와 전율에 휩싸였으며 《울지 프리덤 가디언》 전쟁연습은 서리맛은 호박잎신세가 되고말았다.

역적패당의 전쟁망동을 단숨에 제압한 최고사령관명령

2015년은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 뜻깊은 해의 첫아침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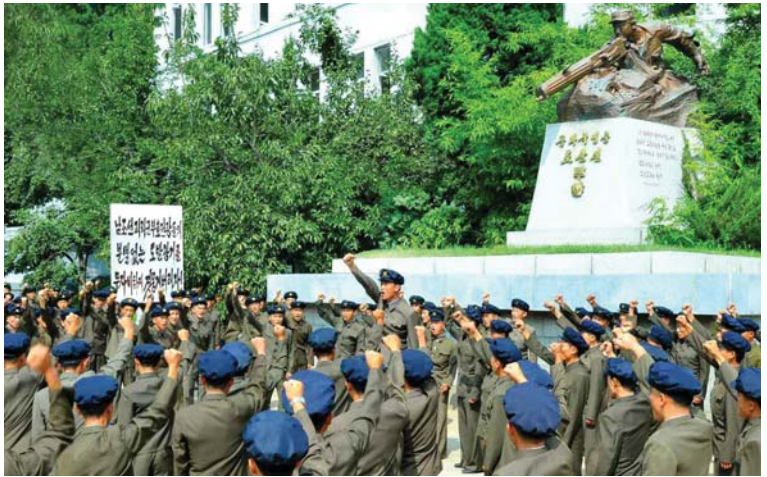
는 투쟁구호를 제시하여주시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문제, 체제대결이 아니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실현하는 문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으로 북남관계의 대전

환, 대변혁을 가져오는 문제 등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당한 지침들을 밝혀주시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을 거머쥔 로폭적인 침략전쟁행위였다.

남조선군사불한당들의 무모한

남조선군사불한당들의 무모한



준전시상태를 선포할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받들고 온 나라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2015년 8월)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중대조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결한 인덕으로 조선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불구름을 가져내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구실을 열어놓으시기 위한 중대조치들도 적극 취해주시어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었다.

단호한 결심과 무적의 전쟁억력으로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무분별한 전쟁망동을 호되게 답습한 공화국은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군집접촉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판문점에서는 북남고위급군집접촉이 진행되게 되었다.

북과 남은 접촉에서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발전을 도모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중대조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략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김정일애국주의를 애국의 기치로 내세우시어

공화국인민들을 참다운 애국의 길로 이끄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 기술에 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인민들에게 김정일애국주의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무산을 안겨주시고 전체 인민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나간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사회의적애국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사회주의와 하나로 결합시키고있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조국의 강화발전과 통성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애국정신이다.

사회의적애국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사회주의와 하나로 결합시키고있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조국의 강화발전과 통성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애국정신이다.

사회의적애국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사회주의와 하나로 결합시키고있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조국의 강화발전과 통성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애국정신이다.

사회의적애국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사회주의와 하나로 결합시키고있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조국의 강화발전과 통성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애국정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과 자기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과 자기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과 자기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과 자기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과 자기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과 자기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과 자기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하시었다.

주제86(1997)년 1월 총련에서는 지부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주요지부의 위원장들을 중앙위원으로 선거하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였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통일공화국에 개척된 숭고한 화평길

민족이 나아갈 길은 어디에



해방된 조선민족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형성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서울신문사의 기자들은 벽차오르는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뚜렷한 민족의 진로를 제시하여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모습에서 두 기자는 창창한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았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 총련지부위원장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